

외상투자법이 재중 한국기업의 세무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on the Tax Decisions of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이박문(Bak-Mun Lee)*, 이은주(Eun-Ju Lee)**

국문초록 : 본 논문은 제20회 삼중전회에서 발표된 개혁·개발 정책의 심화와 이로 인해 도입된 〈외상투자법〉이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세무적 선택과 조직 개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정책적 연구를 통해, 외상투자법 도입 이전과 이후의 이원화된 법적 구조와 세제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법적 일원화가 한국 기업의 조직 형태 변화와 조세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 기업 간의 법적 통일성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여,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외상투자법이 제공하는 내국민 대우와 조세 혜택이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 수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상투자법의 장기적인 영향과 실제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외상투자법, 세무전략, 조세혜택, 법적일원화, 삼중전회

Abstract : This study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deepening reform and opening-up policies announced at the 20th CPC Central Committee's Plenary Session,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Foreign Investment Law〉 and its effects on the tax decisions and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of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Using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d policy analysis, the study compares the dual legal structure and tax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assessing how legal unification has influenced the organizational forms and tax strategies of Korean compan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Foreign Investment Law〉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enhancing legal consistency and tax equity between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nd domestic enterprises, thereby enabling Korean companies to manage their operations in the Chinese market more stably and efficiently. Additionally, in the context of the ongoing U.S.-China trade conflict, the law's provision of national treatment and tax benefits has proven to be a significant factor in the survival strategy of Korean companies in China.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empirically examining the long-term effects of this law and its impact on actual corporate performance.

Key Words : Foreign Investment Law, Tax Strategy, Tax Benefits, Legal Unification, Plenary Session

I. 서론

한국은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정책을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경제는 자연스럽게 높은 무역의존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경제 구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높은 무역의존도는 국제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주요 무역 대상국의 정책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요구한다.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무역의존도는 2020년 31.16%에서 2021년 35.45%, 2022년에는 40.85%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한국의 무역 구조에서 주요 무역 대상국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처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로 조명되었다.¹⁾

2023년,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이었던 중국은 31년 만에 무역 흑자국에서 무역 적자국으로 전환되었다.²⁾ 이는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커다란 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미국은 21년 만에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³⁾ 이러한 무역 구조의 변화는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은 2013년 제18회 삼중전회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추진하며 세계 공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변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의 대외 무역 수지에도 반영되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된 2018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결국 2023년에는 31년 만에 무역 적자로 전환되었다. 반면, 대미국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전체 수출에서 19%를 차지하며 미국이 최대 무역 대상국으로 자리잡았다.⁴⁾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중국 시장에서의 생존 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수는 2015년 33,284개에서 2023년 28,181개로 감소하였다. 이는 8%의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 것을 의미하며,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의 위치가 점점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⁵⁾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정책적 변화, 특히 조직 개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수용하였다. 1979년에는 시장 진입을 위한 포지티브 리스트와 함께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였다. 이후 1986년 <외자기업법>, 1988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추가로 제정하여 이 세 가지 법률을 <외자3법>으로 통칭하게 되었다. <외자3법>에 따른 조직형태는 중국 <회사법>에 따른 조직형태보다 먼저 정착되었다.

2006년 <회사법>의 시행 이후, 중국은 내자기업과 외자 기업을 2원화된 구조로 관리하게 되었다. 이 2원화 관리 구조는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서 조세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18회 삼중전회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심화시키고, 세계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9년 <외상투자법>이 도입되어 중국의 회사 조직에 대한 2원화 구조를 통일하게 되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외상투자법> 제42조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외자3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회사법에 따른 조직형태로 변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상투자법>에 따른 조직 개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조세 혜택에 대해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외상투자법에 따른 조직 개편

2025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존

1) 국가통계포털, 무역의존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806&conn_path=I2

2) 한국최대무역흑자국옛말...中, 역대첫적자국1위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696973&memberNo=25584196&vType=VERTICAL>

3) 미-중갈등속美, 21년만에韓최대무역흑자국부상

<https://www.asiaa.co.kr/article/2023051516535574975>

4) 국가통계포털, 「수출입총괄」자료, 관세청제공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4&tblId=DT_134001_001&conn_path=I2

5) 국가통계포털, 「기업특성별무역통계」자료, 관세청제공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TEC111&conn_path=I2

의 <외자3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회사법> 및 <조합기업법>에 따른 조직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⁶⁾ 이 변화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개혁개방 정책의 일환으로,⁷⁾ 2024년에 개최된 제20회 삼중전화의 결정에 따라 2035년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계를 완전히 구축하고, 외상투자 및 대외 투자관리 체제를 더욱 심화할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중국 내 기업의 법적 지위와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령으로,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1. 외상투자법의 주요 내용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 <외상투자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중국이 국제적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외상투자법> 제4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진입 전 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국 기업과 동일한 조건과 절차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조직 형태의 변경: 제31조와 제42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존의 <외자3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폐지하고, <회사법> 및 <조합기업법>에 따른 조직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 이는 중국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 기업 간의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반독점 규정 준수: <외상투자법> 제33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기업이 경영 집중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반독점법에 따라 경영 집중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외상투자법의 핵심적인 변화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중

6) 외상투자법제42조.

7) 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 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
<http://www.mod.gov.cn/gfbw/qwfb/16325923.html>

국 내에서 운영되는 법적 틀을 내국 기업들과 일치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기존의 외자3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형태를 회사법 및 조합기업법에 따른 조직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외상투자법 제2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a.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 또는 중국인 투자자와 함께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 b.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기업의 주식, 주권, 재산 처분권 또는 기타 권익을 획득하는 경우
- c.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국인 투자자와 함께 중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신설하는 경우
- d. 법률, 행정법령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외상투자법은 또한 외자3법에 따른 기존의 조직 형태를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은 외국인 투자자가 25% 이상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유한책임회사로 정의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①번 외상투자에 해당하며, 중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는 ②번 외상투자에 해당한다. 또한, <외자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외자기업은 외국인 투자자가 100% 소유권을 가진 기업으로, 법적 인격을 만족하면 법인 기업으로 운영될 수 있다.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중외합작경영기업은 내국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가 공동으로 경영을 관리하는 형태로, 이는 ③번 외상투자에 해당한다.

2. 외상투자법의 선행연구

외상투자법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다.

정응기(2016)는 2015년에 발표된 외상투자법 초안을 바탕으로 외자3법과 중국의 기업법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1]. 그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투자자와 합작하여 합작기업을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독자기업을 설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법적 요건과 조직 형태의 선택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송자(2019)는 외상투자항목 관리제도를 4단계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2]. 1978년에서 1994년까지는 내국 및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해 엄격한 관리 규정을 적용하였고, 이후 1995년부터 2003년까지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제정하여 시장 진입을 권장형, 허용형, 제한형, 금

지형으로 구분하였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내외자 투자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적용하여 점차 간소화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최송자(2020)는 외상투자 정보보고제도를 분석하며, 기존의 심사비준제와 정보보고제의 차이점을 논의하였다[3]. 이 연구는 외상투자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보고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기보고, 변경보고, 말소보고, 연도보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인식(2019)은 외상투자법이 중국의 기업 법률 구조를 통일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대우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4]. 그는 이 법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비준제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분석하였다. 조철(2020)은 외상투자법이 한국 제조업의 중국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5], 외상투자법이 시장 진입 전 내국민 대우를 통해 중국 산업에만 지원되던 많은 정책들을 외국 기업들에게도 적용하도록 전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대중국 투자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의 존립 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양효령(2022)은 외상투자법의 후속 법규와 실천 상황을 분석하였다[6]. 상해시 외상투자조례와 광동성 외상투자 권익보호조례를 통해 외상투자법의 실천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며, 네거티브 리스트 제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3. 외상투자법 및 조합기업법에 따른 조직 개편

〈외상투자법〉 제31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직 형태는 회사법 및 조합기업법에 따라 개편되어야 한다. 기존의 외자기업들은 법적 인격을 유지하면서도 조직 형태를 변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법인 기업으로의 전환: 기존의 3자 기업은 민법전 제58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은 주로 상장과 자금 조달 방식을 고려하여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1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며, 출자된 금액에 대해 유한책임을 진다. 반면, 주식유한회사는 1명 이상 20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주식유한회사는 유한책임회사에 비해 주주의 변동성이 크고,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조합기업으로의 전환: 외상투자기업이 조합기업법에 따라 개편되는 경우, "일반 조합기업" 또는 "유한 조합기업"으

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 조합기업은 조합자가 회사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유한 조합기업은 1명 이상의 일반 조합자가 존재하는 경우 유한조합자가 회사채무에 대해 출자한 금액에 한해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조직 개편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법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III. 내국민 대우와 조세혜택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는 국제 무역과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WTO(세계 무역기구)와 같은 국제 규범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내국민 대우는 외국 투자자와 내국 투자자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003년 WTO의 설립은 GATT와 GATS 조약의 내용을 통합하여 국제 경제의 규범으로 자리잡게 했으며, 내국민 대우의 개념도 이에 따라 국제적 표준으로 확립되었다.

전통적으로 내국민 대우는 진입 후 단계에서 적용되었다. 이는 외국 투자자가 이미 시장에 진입한 후에 내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진입 전 단계에서도 내국민 대우를 적용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진입 전 내국민 대우는 외국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전 단계, 즉 투자의 설립, 획득, 확장 과정에서 내국 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는 개념이다.

중국 발전 개혁 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내국민 대우를 진입 전과 진입 후 두 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진입 후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미 시장에 진입한 후 본국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진입 전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내국 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외국인 투자에 대해 주로 진입 후 내국민 대우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진입 후 단계에서 진입 전 단계로 내국민 대우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관리 체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있다. 특히,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가 진입 전 단계에서 내국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

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내국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국민 대우의 강화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내국 기업과 동일한 조세 혜택과 납세 의무를 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적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조직 형태와 경영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1. 외상투자법 이전의 2원화 구조와 세제 차이

〈외상투자법〉이 제정되기 이전, 중국에서는 외자기업과 내자기업 간에 명확한 조직 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들 기업은 법적 구조뿐만 아니라 세금 적용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자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외자기업과 내자기업 간의 법적 이원화 구조가 형성되었다.

첫째, 조직 형태의 이원화는 기업 운영의 복잡성을 증가시켰다. 외자기업은 주로 〈외자3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이는 내자기업이 준수하는 〈회사법〉과는 다른 법적 규제를 따랐다. 이로 인해 외자기업과 내자기업 간의 법적 통일성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는 법적 해석과 규제 적용에서 일관성 문제를 초래했다. 이러한 이원화 구조는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법적 혼란을 겪게 하였으며,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세제 차이는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외자기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받았으며, 관세청 데이터에 따르면 외자기업의 평균 세율은 내자기업에 비해 5% 이상 낮게 적용되었다(관세청, 2020). 예를 들어, 외자기업은 법인세율, 개인소득세, 증치세(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금 분야에서 내자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았다. 외자기업은 일반적으로 내자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세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누렸는데, 이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혜택은 내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내자기업은 동일한 시장에서 외자기업과 경쟁하면서도 더 높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되었고, 이는 내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19년 〈외

상투자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 기업 간의 법적 및 세제적 통합을 목표로 하였다. 〈외상투자법〉은 기존의 외자3법을 폐지하고,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의 법적 구조를 일원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 내 내국 기업과 동일한 법적 기준과 세제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으며, 이는 중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외상투자법의 일원화 구조 도입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 기업 간의 법적 일원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 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내국 기업과 동일한 조건과 절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통합하였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기존의 외자3법 대신, 〈회사법〉 및 〈조합기업법〉에 따른 조직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외상투자법 도입 이후, 중국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 기업 간의 법적 통일성이 강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내국민 대우의 범위가 확대되었다(중국 상무부, 2019). 특히, 조세 정책에서도 일원화된 세율 적용으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누렸던 조세 혜택이 일부 축소되거나 내국 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모든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내국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되었으며, 이는 법적 일관성과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일원화된 법적 구조와 조세 제도는 중국 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제20회 삼중전회의 발표와 외상투자법의 심화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20회 삼중전 회에서는 2035년까지 중국의 발전 방향이 발표되었다. 이 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 중에는 외상투자와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외상투자법〉의 심화와 외국인 투자 관리 체제의 개선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2024년 삼중전회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도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35년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외상투자법의 심화와 외국인 투자 관리 체제의 개선을 통해 중국은 글로벌

별 투자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며, 동시에 내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중국의 법적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외상투자법의 심화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기업소득세의 조세혜택 정리

중국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 기업 모두에게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 혜택은 특히 기업소득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큰 매력을 제공한다.

경제 특구 조세 혜택: 중국은 경제 특구와 같은 특정 개발구역에 위치한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특구에 위치한 기업은 법정 세율인 25% 대신 15%의 우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중국 조세 정책 보고서, 2023). 또한, 신규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초기 몇 년간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있다.

첨단기술기업 우대세율: 고신기술기업(High and New Technology Enterprises, HNTES)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법정 세율보다 낮은 15%의 우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중국이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첨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혜택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중국 상무부, 2019).

중소기업 조세 혜택: 중소기업(Small and Micro Enterprises, SMEs)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조세 혜택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은 연간 과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 소득이 100만 위안 이하인 소규모 기업은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실질적인 세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중국 조세 정책 보고서, 2023).

서부 대개발 정책: 중국 서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부 대개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서부 지역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인 투자기업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구 개발비 추가 공제: 기업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의 75%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중국 과학기술부, 2023).

이와 같은 조세 혜택들은 중국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내국인 대우의 적용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내국 기업과 동일한 조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일관성과 함께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V. 시사점

본 연구는 제20회 삼중전회에서 발표된 개혁·개방 정책의 지속적 심화와 그에 따른 <외상투자법>의 도입이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외상투자법>은 2025년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 기업과 동일한 법적 구조를 따르도록 요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 기업 간의 법적 및 세제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먼저, <외상투자법>의 도입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시장에서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외자기업과 내자기업 간의 이원화된 법적 구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 구조는 법적 혼란과 조세 불평등을 초래하였고, 기업 운영의 복잡성을 증가시켰다. <외상투자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면서, 재중 한국 기업들은 보다 명확한 법적 틀 안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법적 통일성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중국 상무부 보고서, 2023).

둘째, <외상투자법>이 제공하는 내국인 대우와 조세 혜택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경제 특구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 제공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 첨단기술기업 우대세율, 중소기업 조세 혜택 등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효과적으

로 자본을 운용하고 세무 전략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대중국 수출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작용한다(중국무역진흥공사 보고서, 2022).

셋째,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는 중국 내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정치적 방향과 경제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외상투자법>은 이러한 전략 수립의 중요한 요소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제20회 삼중전회에서 발표된 개혁·개방 정책의 심화는 향후 중국의 경제 및 투자 환경이 더욱 개방적이고, 규제 일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한다. 삼중전회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법적 및 경제적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춘 경영 전략과 세무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외상투자법>의 도입과 제20회 삼중전회에서 발표된 정책 방향은 재중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법적 일관성과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앞으로의 성공적인 경영에 필수적이다.

REFERENCES

[1] E. K. Jeong. (2016).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raft Foreign Investment Law and the Chinese corporate legal system. *East Asian Legal Studies*, 19(2), 102-130.

[2] S. J. Choi. (2019). The evolution and changes in foreign investment project management: 1978-2012. *Journal of Chinese Economic Studies*, 15(2), 89-113.

[3] Choi, S. J. (2020). An analysis of the foreign investment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and the approval system. *Journal of Chinese Legal Research*, 22(1), 55-77.

[4] I. S. Kim. (2019). The significance and effects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Integration of Chinese corporate law and improvement of the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 *Journal of Chinese Law Studies*, 24(3), 45-68.

[5] Jo, C. (2020). The impact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on Korean manufacturing investment in China.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1(4), 123-142.

[6] H. R. Yang. (2022). An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Focusing on Shanghai and Guangdong. *East Asian Legal Studies*, 23(3), 74-98.